

2014 SSK 세미나 발표

국제정치체제 모델의 다양성과 변화: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

민 병 원
(이화여자대학교)

문제의식

- 국제정치학과 모델
 - 모델(model)이란 무엇인가?
 - “모델”에 대한 관심: 사람들은 왜 정형화된 모델을 만드는가?
 -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? 휴리스틱(heuristics)
 - 이론과 모델의 연관성: IR 이론의 발전을 위한 도구
- 이 논문의 문제의식
 -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다양한 국제정치체제 모델 작업 리뷰
 - 탈냉전기의 현상 변화가 모델링 작업에 미치는 영향?
 - 냉전기 모델 vs. 탈냉전기 모델의 비교, 차이 분석
 - 모델작업 선정: 냉전기 2편, 탈냉전기 4편

냉전기의 국제정치체제 모델

- 캐플란(Morton Kaplan)의 모델(1957)
 - 1950년대의 배경: 핵무기 개발경쟁, 이데올로기 대립
 - 학문적 관심: 초강대국 주도 양극화 현상, 세력균형 모델
 - 일반시스템이론(GST) 배경: 사회공학적 사고체계, "균형"에 초점
 - 권력의 집중에 대한 우려: 권위주의 정치에 따른 "지시적(directive)" 국제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
- 캐플란 모델의 이론적 측면
 - 국제체제 유형화(typology)를 시도한 최초의 연구
 - 시스템 사고를 통한 과학적 이론화 추구: 적은 수의 변수를 통해 일반 명제를 검증할 수 있다는 확신
 - 월츠(Kenneth Waltz)의 비판: 시스템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과 구조변수를 강조하는 신현실주의 패러다임의 지배

냉전기의 국제정치체제 모델: 캐플란

유형	주요 행위자	구조적 특징	안정성	역사적 사례
위계질서형 국제체제 (Hierarchical International)	국제기구 +국가	- 비지시형(민주적), 지시형(권위적) - 기능적 역할분담	안정	
보편적 국제체제 (Universal International)	국제기구 +국가	- 국가의 하부체제화 - 국가 간 유대감 형성	안정	
느슨한 양극체제 (Loose Bipolar)	국제기구 +강대국	- 양극화 - 블록기구 또는 보편적 국제기구	안정	20세기 세계 (NATO, UN)
경직된 양극체제 (Tight Bipolar)	강대국	- 양극화 - 양 진영이 위계질서형이면 안정적	다소 안정	
세력균형체제 (Balance of Power)	강대국	- 다극화, 균형 지향적 - 강대국 수와 동맹 옵션의 비례	복합	19세기 유럽
단위거부권 국제체제 (Unit Veto International)	국가	- 분산형, 홉스의 자연상태에 근접 - 모든 행위자가 파괴적 무기 보유	매우 불안정	

냉전기의 국제정치체제 모델

- 불(Hedley Bull)의 모델(1977)
 - 1970년대 데탕트의 시대적 배경
 - '국제사회(international society)'의 개념과 '질서'에 대한 관심
 - 4가지의 국가중심적 모델, 4가지의 탈국가적 대안 모델
 - 현재의 국제정치를 반영한 모델과 미래의 가능성을 비교 (Subtitle: "Beyond the States System")
- 불 모델의 이론적 측면
 - "체제(system)"에서 "사회(society)"로: 이론적 초점의 이동
 - 미국식 IR을 넘어선 "영국학파"의 초기 작업
 - 정치사상의 뿌리와 밀접하게 연관: Grotius, Kant, Hobbes, Rousseau

냉전기의 국제정치체제 모델: 불

유형	주요 행위자	구조적 특징	안정성	역사적 사례
비무장 세계 (Disarmed World)	국제기구 +국가	- 모든 국가가 무장 해제에 합의 - 비현실적인 모습, 실현 불가능	안정	
국가연대 (Solidarity of States)	국제기구 +국가	- 범세계적 협력과 기구 (Grotius) -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한계	안정	국제연맹의 창립취지(실패)
이데올로기적 동질체제 (Ideological Homogeneity)	국가	- 국제적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공존 - 세계적 차원의 공화국 (Kant)	안정	신성동맹, 국제 사회주의운동
다수의 핵무기보유국 (World of Many Nuclear Powers)	핵무기 보유국	- 캐플란 단위거부 국제체제와 유사 - 극도의 긴장상태 (Hobbes)	매우 불안정	
국제체제 국가군 (A System But Not a Society)	국가	- 복수의 주권국가 상호작용 (Hobbes) - 국제체제이지만 국제사회는 아님	불안정	
비(非)국제체제 국가군 (States But Not a System)	국가	- 지역 차원 연대 또는 보편적 고립 - 자기충족적 사회와 질서 (Rousseau)	복합	
세계정부 (World Government)	세계공화국, 세계도시	- 주권국가들의 주권 상실 - 질서와 자유 사이의 대치관계	안정	
신중세주의 (New Medievalism)	국가 하부단위체	- 권위의 중첩, 다원적 충성심 - 영토와 국민에 대한 주권 상실	불안정	중세 기독교세계

탈냉전기의 국제정치체제 모델: 단극체제, 광역질서

- 단극화 논쟁과 나이(Joseph Nye) 모델(1992)
 -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와 "단극화" 논쟁 → 나이: 기존의 국가중심 모델의 한계 지적, "자유주의적 국제주의", 신(新)롤즈주의
 - 경제변수와 지역화(regionalization) 추세: 경제블록 모델 제시
 - 복합적 "다층 상호의존" 모델: 미국 → 중위권 국가(경제강국) → 다양한 초국가적 상호의존, 다원화된 권력자원 포트폴리오 고려
- 광역 행위자와 하바키(Robert Harkavy) 모델(1997)
 - 블록화, 지역화: '광역' 행위자의 영향에 주목
 - 문화적 변수와 선진국-개도국 갈등구조: 헌팅턴 논의의 영향
 - 변수의 다변화: 힘의 집중도 → 국가들의 이합집산, 경제적 불균형, 문화적 갈등을 고려

탈냉전기의 국제정치체제 모델: 나이

유형	주요 행위자	구조적 특징	안정성	역사적 사례
양극체제 (Return to Bipolarity)	초강대국	- 러시아의 취약성으로 불투명	다소 불안정	
다극체제 (Multipolarity)	강대국	- 오늘날 힘의 불균형 심화 - 미국에 대한 견제세력 미흡	다소 불안정	19세기 유럽
3개 경제블록 (Three Economic Blocs)	강대국 +지역	- 군사력의 중요성 등한시 - 유럽과 일본의 성장에 기인	불안정	20세기 세계
단극 헤게모니 (Unipolar Hegemony)	초강대국 +국가	- 미국의 헤게모니, 팩스 아메리카나 - 권력 분산으로 사실상 불가능	다소 안정	
다층 상호의존 (Multilevel Interdependence)	초강대국 +(강대)국가	- 복합형, 혼합형 체제 - 부분적인 주권의 이양	복합	

탈냉전기의 국제정치체제 모델: 하카비

유형	주요 행위자	구조적 특징	안정성	역사적 사례
단극 지배체제 (Unipolar Dominance)	초강대국 +강대국	- 미국의 헤게모니 기반 - 도전국의 첨단기술 추격이 관건	복합	1990년대 초반
양극체제 (Bipolar Redux)	초강대국	- 미국-러시아 대립구도 복귀 - 신(新)냉전 상황과 동맹구도	불안정	
다극 세력균형체제 (Multipolar Balance of Power)	강대국	- 미국의 상대적 권력 쇠퇴 - 수정주의적, 파시스트적 도전	불안정	
3개 블록 신중상주의 (Three Bloc Mercantilist)	강대국 +블록	- 미국, 일본, 유럽 중심 경제블록 - 자원을 둘러싼 신중상주의적 경쟁	불안정	20세기 후반의 세계
문명권 기반체제 (Clash of Civilizations)	문명권	- 헌팅턴의 '문명의 충돌' 테제 - 문화적 동질성을 갖는 문명권	불안정	
평화-혼란지대 대립체제 (Zones of Peace vs. Turmoil)	지대	- 평화지대와 혼란지대의 대립 - 남북 간의 집단적 대립	매우 불안정	
지구촌 (Global Village)	국가 +초국가기업	- 정보통신과 교류의 증가에 기인 - 새로운 글로벌 망(web)	안정	18세기 유럽 엘리트

탈냉전기의 국제정치체제 모델: 복합시각, 세계통합

- 복잡계이론과 격변: 로즈노(James Rosenau) 모델(1990)
 - 예측불가능한 '격변(catastrophe)' 현상에 대한 관심
 - 복잡계이론의 기반 위에 국제정치체제를 모델화
 - 거시 차원과 미시 차원을 구분, 상호작용 메커니즘 제시
 - 집중화와 분산화의 공존 모델 → '분기(bifurcation)' 개념 제시
- 세계통합의 꿈과 월쩌(Michael Walzer) 모델(2000)
 - 공동체주의자: 이상적인 모델과 그 한계에 대한 고민
 - 국제사회의 "가치"에 대한 관심: 인도주의적 개입 등 강력한 형태의 미래 모델 구축 (최선의 모델 = 탈국가적 글로벌 다원주의)
 - 특정 국가의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극복 → 국가, 국제기구, 시민사회, 지역연합 등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초점

탈냉전기의 국제정치체제 모델: 로즈노

유형	주요 행위자	구조적 특징	안정성	역사적 사례
지구사회 (Global Society)	초국가 단위체	- 자유주의적 낙관론에 근거 - 중앙집권화된 체제 및 규범	안정	
국가 복귀체제 (Restored State-System)	국가	- 국가주권의 회복 - 집중화와 분산화의 혼재	복합	
다원주의 체제 (Pluralist Scenario)	국가	- 지속적 분산화, 다중심체제 등장 - 소집단을 통한 개인의 발언권	불안정	
지속적 분기 (Enduring Bifurcation)	초국가 단위체+국가	- 집중화와 분산화의 균형 - 국가중심체제와 다중심체제 공존	불안정	

탈냉전기의 국제정치체제 모델: 월쩌

유형	주요 행위자	구조적 특징	안정성	역사적 사례
세계공화국 (World Republic)	세계정부	- 칸트 평화사상 기반 세계정부 - 시민의 권리, 의무, 정체성 동일	매우 안정	
단일 헤게모니 (Single Hegemony)	제국	- 정치적 불평등성이 존재 - 헤게모니의 세계평화와 안정 추구	안정	로마의 평화 미국의 평화
세계연방 (World Federation)	연방체제 +국가	- 일부 국가주권을 연방에 양도 - 기존 과점적 불균등 해소가 관건	복합	
탈국가적 글로벌 다원주의 (3 rd -Degree Global Pluralism)	시민사회 +기구+지역	- 다양한 행위자들의 탈국가적 연합 - 단일 국가에 의한 독재 예방	복합	(최선의 대안)
강한 글로벌 다원주의 (Strong Global Pluralism)	국가+기구 +시민사회	- 강력한 글로벌 시민사회 다원주의 - 초국가기업 등의 세력확대와 혼란	불안정	
약한 글로벌 다원주의 (Weak Global Pluralism)	국가 +국제기구	- 현존하는 국제기구의 취약한 권한 - 국가주권의 취약성, 분열, 불안정	불안정	탈냉전기 세계
무정부상태 (International Anarchy)	국가	- 글로벌 차원의 권위와 법률 부재 - 국가의 이해관계에만 근거한 결정	매우 불안정	

국제정치체제 모델: 이론적 논의

- 탈냉전기 국제정치의 복잡성과 불안정성
 - 현실 정치의 변화: 국민국가 경계가 불투명, 비국가 행위자 등장
→ 국제정치 행위자의 복합적 측면 중요
 - 체제의 속성 변화, 체제 구성원의 속성 변화에 관심
 - '개인'과 그들 사이의 '네트워크' → 권위의 분산에 대한 관심
 - 안정/조화 → 불안정성/다양성으로 초점 이동
-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모델링 비교
 - 냉전기: 안정체제 및 균형, 조화, 예측가능성 중시
 - 탈냉전기: 불안정성, 예측불가능성, 다양성의 측면에 초점

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모델링 비교

시기	학자	모델수	안정체제	복합체제	불안정체제
냉전	캐플란	6	- 위계질서형 국제체제 - 보편적 국제체제 - 느슨한 양극체제 - 경직된 양극체제	- 세력균형체제	- 단위거부권 국제체제
	불	7	- 비무장 세계 - 국가연대 - 이데올로기적 동질체제 - 세계정부	- 비국제체제 국가군	- 다수의 핵무기보유국 - 국제체제 국가군 - 신중세주의
탈냉전	나이	5	- 단극 헤게모니	- 다층 상호의존	- 양극체제 - 다극체제 - 3개 경제블록
	하카비	8	- 지구촌	- 단극 지배체제	- 양극체제 - 다극 세력균형체제 - 3개 블록 신중상주의 - 문명권 기반체제 - 평화-혼란지대 대립
	로즈노	4	- 지구사회	- 국가 복귀체제	- 다원주의 체제 - 지속적 분기
	윌퍼	7	- 세계정부 - 단일 헤게모니	- 세계연방 - 탈국가적 다원주의	- 강한 글로벌 다원주의 - 약한 글로벌 다원주의 - 무정부상태

국제정치체제 모델: 이론적 논의

- 탈냉전기 국제정치의 규범적 측면과 인간중심주의
 - “그럴듯한(plausible)” 모델에서 “가치”가 내재된 모델로 확대
 - 공동체주의 전통: 진정한 “보편적 공동체”에 대한 열망 반영
- 정치철학의 전통과 모델링
 - 아우구스티누스 전통: 정치체의 억압적, 질서유지적 측면 중시 (냉전기의 특징)
 - 아리스토텔레스 전통: 정치체 = 도덕적 공동체, 소통 중시 (탈냉전기의 특징) → 규범적, 인간중심적 측면에 점차 관심 증가 → 보편적 제도 구축을 위한 전초전? (R2P, 인권, 민주주의 등)
 - 두 가지 전통의 보완적 측면: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남